

조교제도 개선안, 대화가 필요해

문하령 기자 moonbym@khu.ac.kr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학교 측의 일방적인 제도 변경으로 논란이 일었던 조교제도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새롭게 개선된다. 지난 달 24일 교무팀은 조교제도 개선 Task Force(TF) 결과에 따른 조교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 학기에 비해 평균 110만 원(일반대학원 기준) 정도를 추가로 수혜 받는다.

지난 학기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조교제도가 변경됐다. 교육부는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을 통해 조교 권익 강화를 목적으로 조교 운영 및 복무형태를 명확히 하도록 제시했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실제 근로 조건 변동 없이 장학금 대폭 삭감 ▲발령 직전 변동 사항 통보 등의 이유로 반발을 샀다. 이에 조교들은 캠퍼스 곳곳에 대자보를 붙이고, 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교무팀은 “조교제도 변경에서 비롯된 문제를 인식하고 TF를 구성할 것”이라며 논란 속에서 개편한 조교제도를 우선 시행했다.

변경된 조교제도를 개선하고자 구성된 TF는 각 대학원마다 다른 수업료를 고려해 개선안을 냈다. 이번 학기 개선된 조교제도에 따르면, I형은 수업료의 80%(평균 약 474만 원), II형은 수업료의 40%(평균 약 237만 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학기 I형 364만 원, II형 182만 원의 수혜에 비하면 분명 개선된 내용이다.

평생교육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영훈(체육대학원 스포츠의과학 2기) 씨 역시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이 여전히 부담되는 건 사실이지만 지난 학기에 비하면 장학 수혜 금액이 대폭 늘어났다”며 이번 개선안에 반가움을 표했다. 이과대학 수학과에서 수



업 조교로 근무하는 황효미(교육대학원 수학교육학 2기) 씨는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장학금이 지난 학기에 비해 늘었다”며 장학제도 변경에 대한 조교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반응을 전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 역시 불만의 여지는 남아있다. 황 씨는 “시험기간 등 경우에 따라 주 14시간의 근무를 초과하게 된다”면서 근무 시간 산정 및 지원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학과 사무실에서 행정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조교들이 만족스러워하는 분위기지만, 사실상 대비효과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사실 학교 측 결정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조교 입장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한영신 부처장은 “조교 복무형태의 특수성을 감안한 장학 혜택을 대안으로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신중하게 진행하고자 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초과 근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선 “학교에서 제시한 기준을 어기는 담당 부서 또는 교수의 책임”이라며 “학교 차원에서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를 진행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렇지만 학교 측의 불통에 아쉬운 목소리도 나왔다.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안지민(일반대학원 응용예술학 2기) 회장은 “TF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학생회와 교류가 전혀 없었다”며 “학생 대표를 참여시켜 주지 않더라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기 중에 실험 조교, 수업 조교, 행정 조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예상돼 이를 모아 학생 대표로서 입장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TF 구성을 도맡았던 일반대학원 행정실에서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영신 부처장은 “TF 성격상 학생 대표와 함께 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TF 운영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학생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교제도에 대한 안내 또한 “조교제도 변경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고지된 사례가 없었다”며 “이번 학기에는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부서를 통한 안내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에게 해당 내용을 메일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면에서 이어짐

구성원 대표자 회의 후 약 열흘가량 지난 지금, 그동안 논의를 이어온 투표비율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대다수다. 그러나 구성원 간 구체적인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노조와 학생 대표는 지난 구성원 대표자 회의에서 밝힌 의사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한상 위원장은 “지금도 구성원 대표자 회의에서 밝힌 의견은 유효하다”며 “당시 제안했던 13:13:4 비율에 대한 총동원회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제캠퍼스 총학 전완주(일본어학 2015) 회장 역시 “아직 학생 단일 의견을 도출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교수의회 안을 그대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투표비율에 대해 더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캠 총학 김 회장을 비롯한 다른 학생 대표도 단일한 의견을 마련한 수준은 아니지만 투표비율에 논의 여지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구성원 대표자 회의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경희학원 노조 장백기 위원장은 이후 “투표비율을 논의하는 것으로는 결과를 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교수의회가 제안한 1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지만 2안은 차선책을 제안한 것임으

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총장 선출에 대한 구성원 합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총학 안지민(일반대학원 응용예술학과 2기) 회장은 “총장 공백이 커지면서 학생들이 받는 피해가 가장 크다는 말에 공감하기 때문에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다만 시간에 쫓겨 속행한다면 학생뿐 아니라 다른 구성원 단체에도 피해가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바른 합의점을 찾는 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수의회 강재식 의장은 “투표비율에 대한 갈등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차선책 논의도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두 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히며 “계속되는 논의에 구성원들은 피로를 느끼고 있으니 중요한 책임 당사자인 학교 당국이 적극적으로 타협점을 찾도록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한 위원장 역시 “마감기한을 맞추지 못했으니 이사회에서 선임하겠다는 오판은 하지 않으셨으리라 믿는다”며 “많이 지연됐지만 구성원 간 구체적인 합의가 가는 중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28일 이사회가 아무런 의결 사항 없이 끝난 가운데 총장 선출 규정안 합의를 위한 공식적인 회의는 아직까지 예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2일 국제캠퍼스 학생회관에서 구성원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

2019 KHU 취업박람회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선승관

9.4 (수) ~ 9.5 (목)

10:00 ~ 17:00

KHU

취업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참여 기업 정보를 알아보자!

PROGRAM

기업채용 · 상담 ZONE | 대기업, 공기업, 외국계기업, 중견기업 등
직무전설 ZONE | R&D, 생산품질관리, 전자 반도체, 영업 마케팅
창업 ZONE | 창업 아이디어 전시회, 창업 신배 멘토링
채팅 · 이벤트 ZONE | 이력서 클리닉, VR면접 체험, 무료이력서 사진촬영, 피스넵 릴러전단

주최 경희대학교

주관 경희대학교 미래인재센터, (주)엘리트코리아

올바른 논문작성법과 연구윤리

2019-2학기 연구력강화워크숍

2019. 9. 19 (목) 오후 2시
중앙도서관 1층 컨퍼런스룸

강사
황은성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생명과학과
전 서울시립대 연구처장 / 산학협력담당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기획운영위원장

강연구성
◆논문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좋은 논문 글쓰기와 표절 예방
◆저자로서의 자격과 역할

신청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 RESEARCH > 학술정보활용교육
(<https://library.khu.ac.kr/seoul/workshop>)

대상
교원, 대학원생, 학부생

문의 | 02-961-9285 / khsd3016@khu.ac.kr (학술연구지원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KUMH KUMH UNIVERSITY LIBRARY